

# “거룩한 희생·호국 의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”

## 제주도지부, 백마고지 전투 영웅 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거행

제주도지부(회장 한주용)는 6·25전쟁 69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4일 탐라자유회관 경내에 있는 '백마고지의 영웅' 故 강승우 소위 동상 앞에서 한주용 지부회장,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, 유가족을 비롯해 내빈과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'을 개최했다.

고 강승우 소위는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으로 1952년 10월 백마고지전투에서 소대원들과 맨몸으로 수류탄을 들고 적에게 돌진, 적진지를 파괴해 산화하는 등 목숨을 바쳐 백마고지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. 이날 한주용 회장은 추념사를 통해 “백마고지전투에서 신화를 창조한 고 강승우 소위와 호국영령들의 못다 이룬 유업을 받들어 호국의지를 굳게 다져 나가자”고 말했다.



## 4·27 판문점 디오라마 전시회

북측 판문각 등 총 4개 작품 전시돼

| 부산시지부 |

부산시지부(회장 양재생)는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부산 통일관 1층에서 4·27 판문점 디오라마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들을 맞았다.

이번 행사는 '4·27 판문점 디

오라마'라는 제목으로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 두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을 재현한 모습, 북측 판문각, 남측 자유의 집, 도보다리 총 4개 작품이 전시됐다.



## 나라꽃이 사라진다-무궁화 심기

회원 80여 명 무궁화 묘목 300주 식재

| 울산시지부 |

울산시지부(회장 박민호)는 5월 22일, 중구 성안동의 복지공원에서 지부 임원과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나라꽃이 사라진다-무궁화 묘목심기' 행사를 가졌다.

박민호 회장은 “나라꽃 무궁화가 사라지고 있다”며 '무궁화 묘목심기'를 통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나라꽃의 소중함과 애국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”고 말했다.



## 국가유공자 초청 위안잔치

| 부산 금정구지회 |

부산 금정구지회(회장 오용준)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6월 5일 서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 위안잔치를 가졌다.



##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

| 부산시지부 |

부산시지부(회장 양재생)는 5월 29일 자유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직간부, 회원 및 일반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교육원 박형일 강사를 초빙해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.



##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견학

| 부산 남구지회 |

부산 남구지회(회장 박희두)는 6월 9일 동분회협의회장단, 각 동분회 간부 및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.

이날 참가자들은 경남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과 통영 동피랑 마을 일대를 견학하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고 통일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.

### 단신

**통일 릴레이 체험 프로그램**  
제주도지부는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탐라자유회관에서 학생 및 도민 등을 대상으로 '통일 릴레이 체험 프로그램 행사'를 진행했다.

### 무료급식 봉사

제주 제주시지회 여성회는 6월 13일 도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급식봉사를 실시했다.

### 불법 주정차 선진문화 교통캠페인

울산시지부는 6월 11일 북구 시장2리 사거리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기초질서 캠페인을 펼쳤다.

###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게시

부산 서구지회는 6월 7일 송도해수욕장 입구에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했다.

### 부산 연제구 거제1동분회

는 6월 3일 거제1동 주민센터 앞에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을 게시했다.

### 환경정화 캠페인

부산 연제구 연산2동분회는 6월 2일 연산2동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.

### 부산 사상구 모라3동분회

는 5월 26일 모라동 운수사계곡 등산로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.

### 이·미용 봉사

부산 연제구 거제3동분회는 6월 2일 거제3동주민센터에서 이·미용 봉사활동을 했다.

### 충무공 이순신 장군 전적지 순례

울산 북구지회 조직간부와 회원 40여 명은 5월 30일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과 충렬사 등을 둘러보며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전적지 순례를 실시했다.